

화장품에 만연한 비과학적 사고와 그 대응방안 모색

화장품비평가 최지현(C&I 소비자연구소 책임연구원)

화장품 문화에 만연한 비과학적 사고

1. 성분에 대한 비과학적 사고

2. 효과에 대한 비과학적 사고

3. 제도에 대한 비합리적 사고

4. 과학에 대한 반과학적 사고

성분에 대한 비과학적 사고

1. 합성성분은 위험하고 천연성분은 안전하다.

2. 독성, 발암성이 있는 성분은 화장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3. 독성이 있는 성분은 아무리 적은 함량이라도 위험할 수 있다.

4. 대체성분이 더 안전하다.

5.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분 때문이다.

효과에 대한 비과학적 사고

1. 화장품으로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드름 완화, 아토피 치료, 탈모 치료 등 화장품 이상의 효과를 기대)

2. 효과가 더 뛰어난 성분이 있다. (성분에 대한 환상)

3. 제품 간 우열이 있으며 순위를 매길 수 있다.

(ewg 점수, 유튜버가 꼽는 top of top)

4. 전문가가 추천하는 제품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효과가 있다.

제도에 대한 비합리적 사고

1. 유통기준을 어긴 제품이 적발되는 것은 식약처가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2. 식약처가 위험한 성분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기업의 로비 때문이다.

3. 정부기관이 안전하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 것이 좋다.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살충제 계란, 생리대 사태)

행정처분 분석 (2021년 1월~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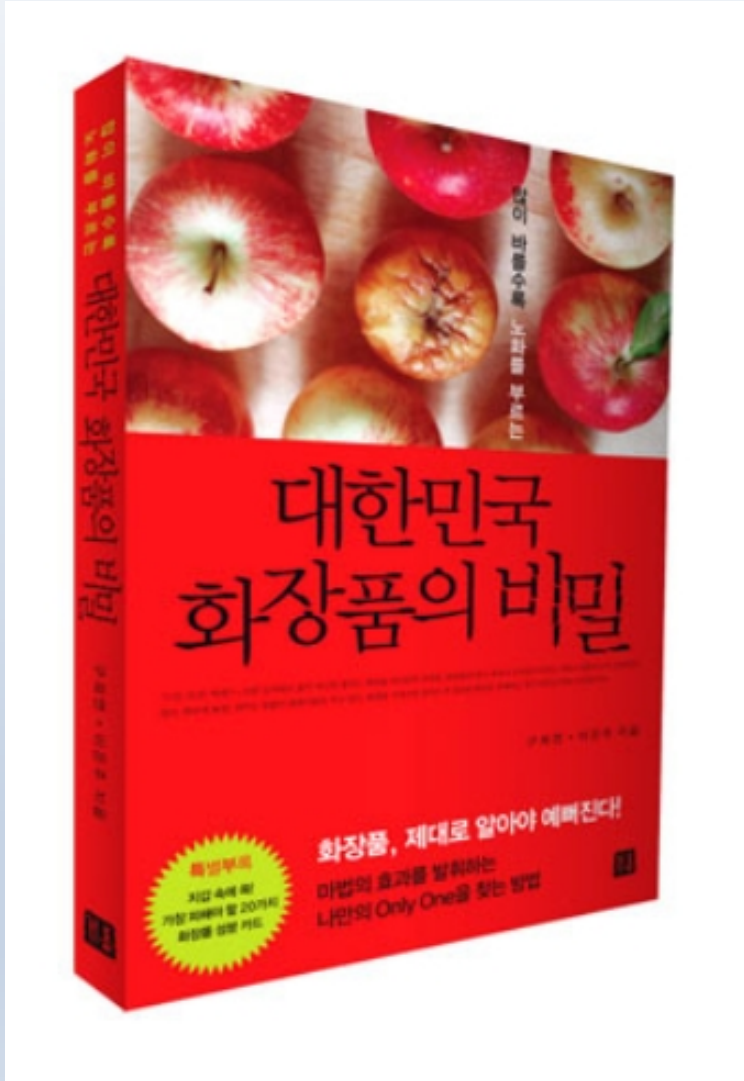
6건

총 150건



유통화장품 품질기준 위반

-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2건
- 세균 진균 초과 검출 4건



“학계는 파라벤을 경계하고 계속 연구하며 사용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화장품협회 등은 ‘파라벤은 이미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된 물질이며 파라벤을 각종 화장품에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며 학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페이지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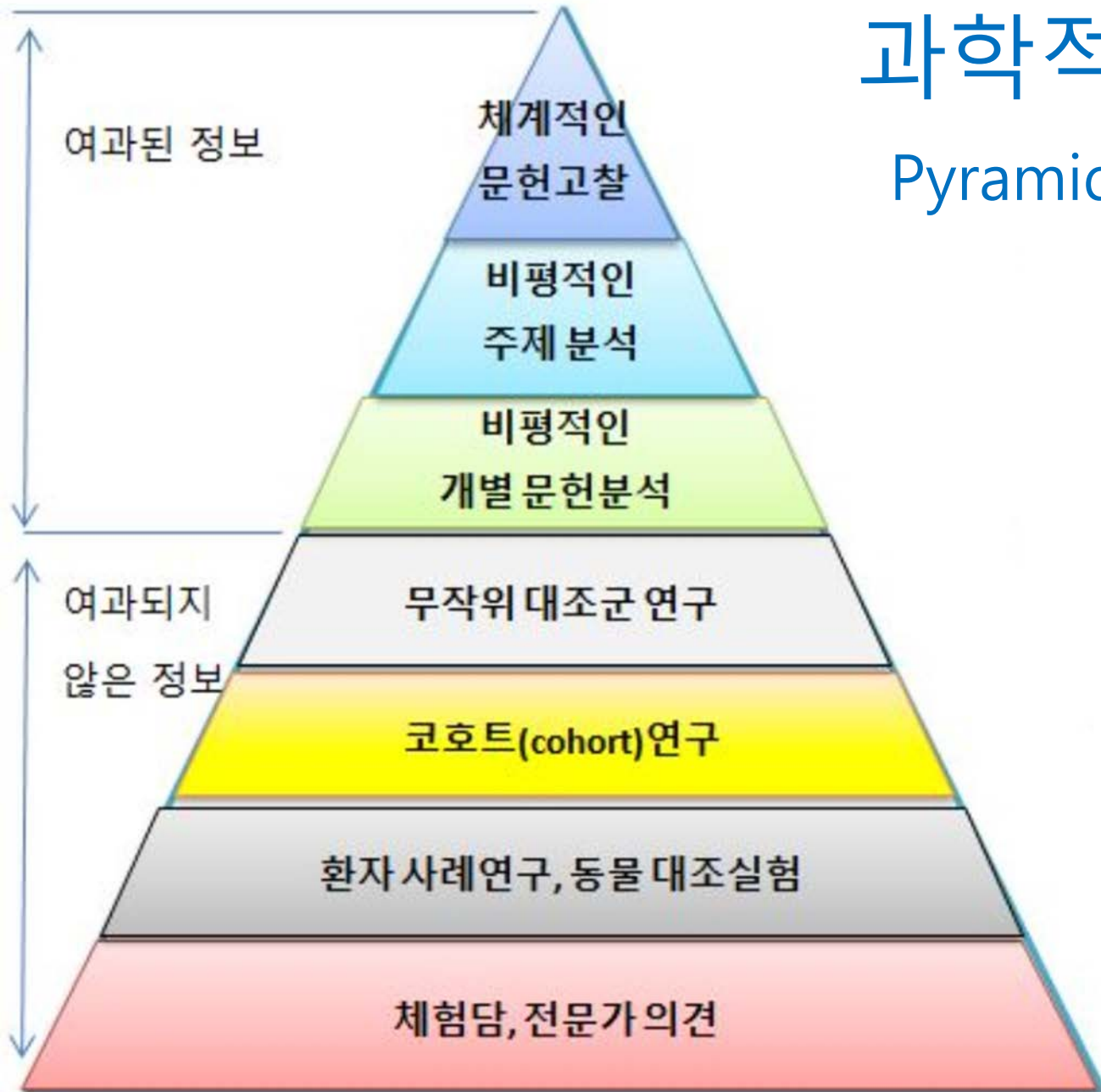
과학에 대한 반과학적 사고

1. 과학도 완벽하지 않으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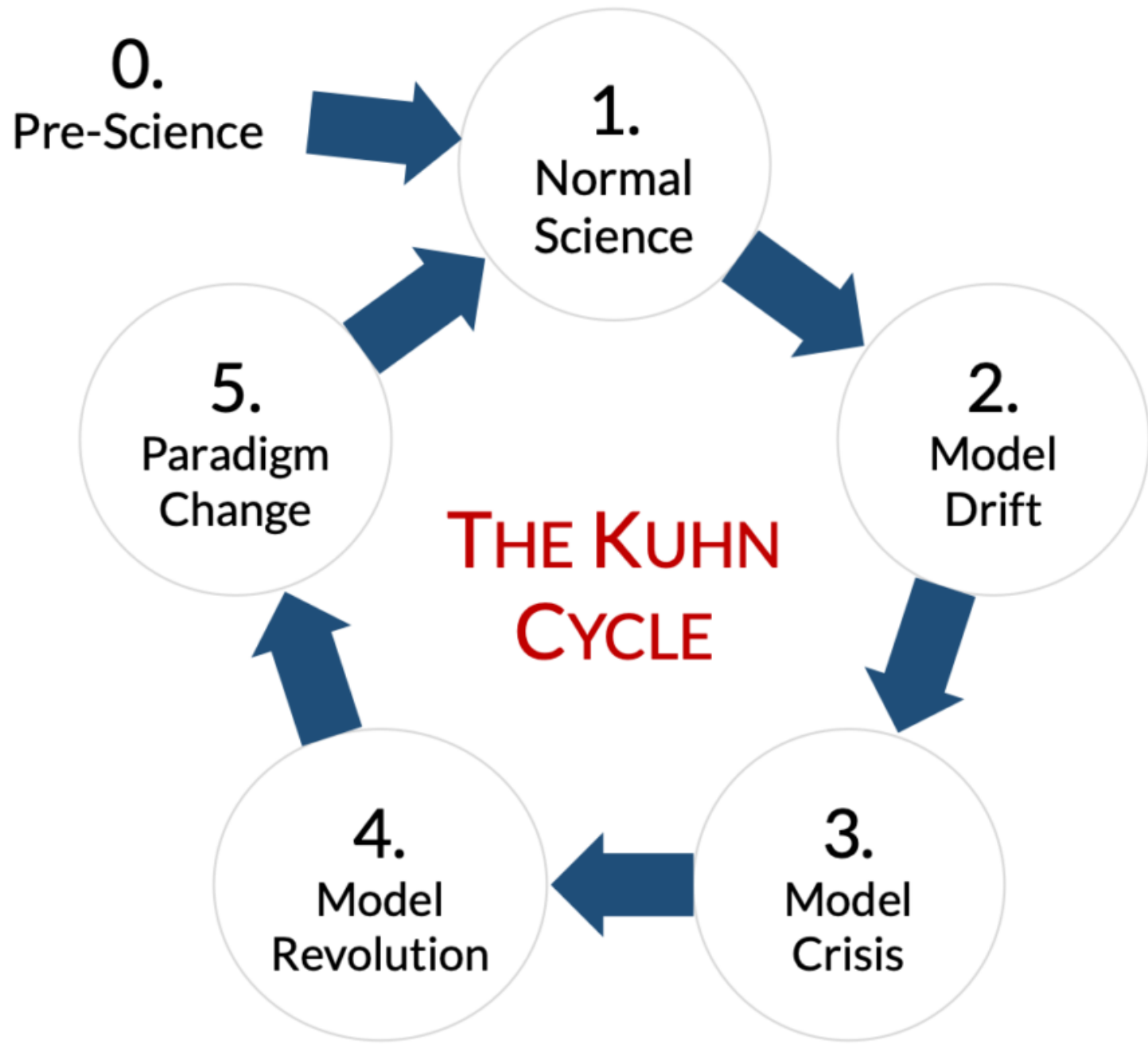
2. 과학은 믿을 수 없지만 체험담은 믿는다.

과학적 근거의 피라미드

Pyramid of Scientific Ev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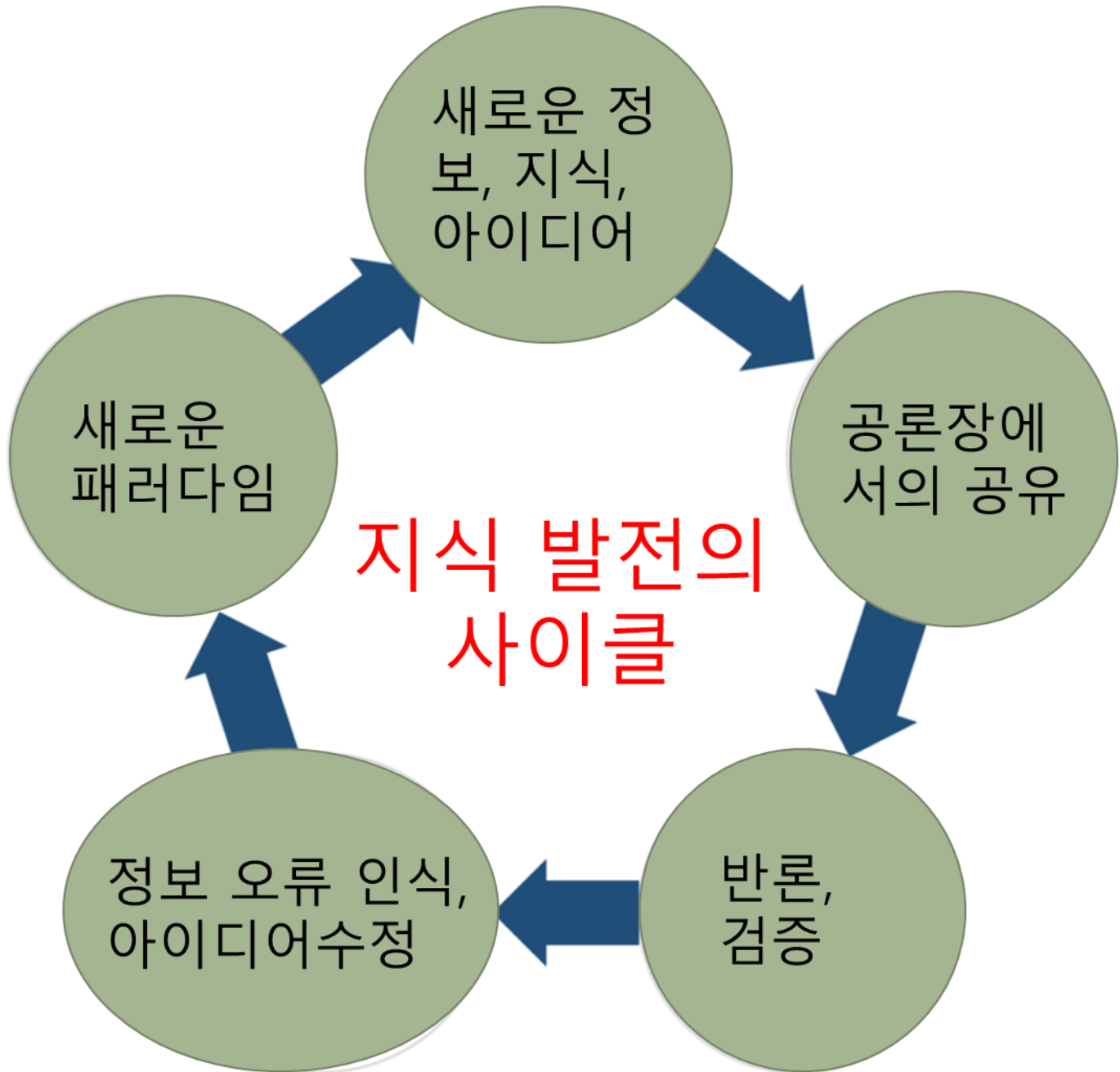


“진실의 반대말은 신념이고,
과학의 반대말은 체험담이다.”



과학 발전 모델
(Model of Scientific
Progress)

더 쿤 사이클
The Kuhn Cycle



지식 발전의
사이클

새로운 정
보, 지식,
아이디어

공론장에
서의 공유

반론,
검증

정보 오류 인식,
아이디어수정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해야 할 일

1. 활발한 팩트 체크

2. 과학 독해력 교육 (과학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3. 화학물질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길러주는 캠페인

(화학물질과 친해지기, 화학물질아 고마워, 화학물질과 좋은 관계맺기 캠페인 등)

4.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위해평가, 보도자료, SNS, 유튜브를 통한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5. 제도 강화 (화학물질 비방광고, 공포마케팅, 안전 마케팅 규제)

감사합니다!

